



정교회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디오니시오스 예기나의 주교

루가 제11주일 / 주님 선조들의 축일

성 엘레프테리오스 주교순교자와

모친 성 안티아 순교자

제1조, 조과복음 4(조과에서 성탄 까따바시아)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1조 부활 찬양송 / 81. A 211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주님 선조들의 찬양송

. 성당 찬양송

. 성탄 대림절 시기송 / 208. B 239

. 사도경: II 디모테오 1,8-18 / 봉독서 636

. 복음경: 루가 14,16-24 / 130. B 78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디오니시오스 예기나의 주교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17일 다니엘 예언자와 바빌론의 세 젊은이들, 그리고 예기나의 성 디오니시오스 주교(1547~1622)를 축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킨토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디오니시오스 성인은 먼저 스트로파돈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고, 서품을 받고 나중에 예기나의 주교로 계시다가 다시 자킨토의 아나포니트리아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인

이 지니고 보여 주신 큰 덕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관용이었습니다. 성인의 형제를 살해한 강도가 성인의 수도원으로 와서 숨겨달라고 했을 때, 성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강도를 숨겨 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인을 존경하고 경건하게 성인의 성유해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핑계(구실)

거룩한 주일에 성당에 오지 못하는 교인들의 핑계를 들어보면 매우 다양하다. 어른들은 모임이 있어서 또는 일이 바빠서 못 온다 하고, 중·고등학생들은 특히 시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성당에 오지 않는다. 어른들을 따라서 성당에 오는 학생들이 안 올 때 부모에게 물어보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학원에 가야 한다며 오히려 당연시한다. 학원 선생들은 주말도 없이 학생들을 불러대니 그 사람들은 가족하고 언제 오בות한 시간을 보내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다. 가족 간의 대화 단절과 올바른 인격 형성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에 주일에 학원을 쉬게 하는 것을 법제화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보면 자녀들이 고등학교 2-3학년이 돼서 거의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만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들이 얼마나 인격을 갖추고 시대를 바르게 살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된다. 요즘 들리는 현대의 범죄 사건들을 그냥 한 순간의 범죄로만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제대로 인격 형성이 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 사회 혼란은 대부분 잘못된 교육 제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요즘은 사회 범죄가 저명 인사들과 유명인으로부터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 판·검사와 의사, 교수, 연예인, 재벌가, 정치인 그리고 성직자 등 과거에 공부 잘했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뒤늦게 사고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 영, 수를 잘하면 착하고 바른 학생이고, 못하는 학생들은 모두 문제아가 되는 그릇된 판단 인식과 소수만을 위한 교육 정책과 사회 제도가 이런 사고방식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인격의 잣대인 것처럼 포장해 버리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신 태초의 인간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탄이 주는 돈과 명예와 지위를 악용해서 비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치 참행복인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태초의 인간은 죄가 없이 선한 모습이었고 선한 삶을 살았다. 어떤 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느님 자체가 선한 분으로서 그의 모습을 닮은 인간도 자연스럽게 선한 모습으로 창조된 것이다. 선한 모습이 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은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한 것이다. 바로 악의 교육자인 사탄이 그릇된 교육을 가르쳐 그때부터 인간은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고 바른 인격을 갖추며 성숙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의 바른 교육은 오로지 선하신 하느님의 가르침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상 어느 인간이라도 그저 죄 많은 인간일 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한계가 있다. 바른 교회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외면을 하며 자식들에게 신앙생활을 시키지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영원한 유산은 오직 하느님을 바르게 알게 하고 믿음 생활을 시키는 것뿐이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다른 길

세라핌 홀랜드 신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를 마쳤을 때,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 갔다.”(마태오 2,12)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이 본문을 읽을 때 마다 저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다른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도 아니며, 아무런 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는 삶도 아닌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으므로 우리도 이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신비롭게 우리에게도 살아갈 다른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취에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슬픔과 죄, 불확실성, 불완전성, 질병, 죽음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 다른 길도 있습니다. 곧, 생명과 기쁨, 완전함, 완성과 평화, 정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우리 영혼에 적용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부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패한 것을 위해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부패와는) 다른 길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됨으로써 그분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 인간이신 분의 육화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만 의지는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지만, 우리가 지닌 자유를 존중하시기에 의지 자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른 길을 따라 가려는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된다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며 참인간으로서 다른 길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 아타나시아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12월 17일 축일을 맞이하는 울산 성 디오니시오스 성당의 신부님과 교우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성 디오니시오스 성인의 증보와 하느님의 은총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으면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소 식

대교구

- 성탄절과 신년, 신현 축일 예배 일정
 - 2019년 12월 24일(화)
오전 : 성탄절 대시과
오후 : 성탄 대축일 대만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2019년 12월 25일(수)
오전 : 성탄 대축일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성탄 대축일 행사 및 사랑의 오찬
 - 2019년 12월 31일(화)
오후 : 축일 대만과
 - 2020년 1월 1일(수)
오전 : 축일 조과,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바실로뽀따 축성 기도식, 다과
 - 2020년 1월 3일(금)
오전 : 신현축일 대시과
 - 2020년 1월 5일(일)
오전 : 주일 조과,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찬예배
 - 2020년 1월 6일(월)
오전 : 신현축일 조과 및 성 대 바실리오스 성찬예배
 - 신현축일 대성수식
- ☞ 자세한 시간은 각 성당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신자총회 공고 ▷ 2020년 1월 12일 주일 성찬예배 후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2019년도 결산과 영적사업의 결과와 2020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받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신자총회 공고 ▷ 오는 12월 22일(주일) 정오에 제35회 신자총회가 개최됩니다. 인천 성 바울로 성당 신자총회에서 결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
 1. 2019년 사업보고 및 2020년 사업계획
 2. 2019년 회계결산 및 2020년 회계예산
 3. 운영위원, 단체장 선임 및 연임
 신자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신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년도회비 5,000원 납부자에 한합니다. 모든 신자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신자총회 공고 ▷ 2020년 1월 12일 성찬예배 후 신자총회가 있습니다. 예산, 결산과 사목보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현안에 대해 토의가 있을 것입니다.
- 청년회원들이 노후된 성당 간판 글씨를 새롭게 제작하여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청년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지난 토요일(7일)에 여성회원들이 성당에 필요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감장을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의 정신을 갖고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 신자총회 공고 ▷ 오는 1월 12일 주일 성찬예배 후 신자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2019년도 결산과 영적사업의 결과와 2020년도 예산과 영적 사업을 의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간예식

- 12월 17일(화) 다니엘 예언자, 성 디오니시오스 주교 축일
- 12월 20일(금) 성 이그나티오스 안디오키아 주교순교자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